

삼정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6 May_Vol.160

Vision

2020





Cover story

새로운 도약을 향한 힘찬 날갯짓

일념통암(一念通巖), ‘정신을 집중하면 화살로 바위도 뚫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입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한 것에 대하여 온 정신을 집중하고 몰입한다면 반드시 이뤄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삼정KPMG는 다가오는 2020년을 향해 새 비전 ‘The Clear Choice’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정KPMG는 최고의 전문성과 품질로 고객 선호도 1위를 달성하고,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며 모든 소속 구성원들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는 회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며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회계법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Vision 2020 선포로 새로운 날갯짓을 시작한 삼정KPMG. 일념통암의 결연한 각오와 신념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하여, 고객 성장을 넘어 사회 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Contents

May 2016 Vol.160 삼정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삼정KPMG Vision 2020
FY2016 삼정KPMG 사업전략 발표회
- 06 Team Spirit
삼정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
- 08 Market Reader
중국의 스타트업, 창커(创客) 열풍과 우리의 기회
- 10 Client+
코웨이
- 12 Excellence Report
CEO COLUMN / ADVISORY



행복한 일터

- 15 Culture Relay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 16 Purpose Story
'Our Higher Purpose!'
- 18 이색삼정★
삼정KPMG 요가 스타 ITS본부 이인영 직원
- 20 Talk! 연결고리
삼정KPMG의 형제&자매 이야기
- 22 가자 세계로!
세계 속에서 전진하는 나라, 싱가포르
- 24 Love Family
찰칵! 가족과 함께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
- 26 행복충전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 28 Samjong News
삼정KPMG, 교육장 및 프로젝트룸 오픈! 外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디자인 홍보팀(02-2112-7567) 제작·인쇄 네오미디어(02-512-16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 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FY2016 삼정KPMG 사업전략 발표회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선포

삼정KPMG는 지난 4월 25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FY2016 사업전략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난 FY2015를 되돌아보고 이번 사업연도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날 현장에서는 다가올 2020년을 기대하며 새로운 Vision 'The Clear Choice'를 선포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 '건강한 성장' 이룬 FY2015

삼정KPMG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FY2016 사업전략 발표회'가 지난 4월 25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교태 CEO를 비롯해 고문단 및 각 부문 리더,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직급 이상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교태 CEO는 “이 자리는 삼정KPMG의 FY2015를 되돌아보고, FY2016 사업 전략 및 Vision 2020을 공유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마음으로 범인 성장에 힘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FY2015 우수인재 포상식'을 열어, 우수한 성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해온 임직원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그간의 혁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외 저성장의 기조와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도 삼정KPMG는 혁

신과 도전의 자세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일궈냈다. 지난해 매출 3,015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0%대의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특히, 모든 Function이 성장을 기록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감사분야는 업계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감사 서비스와 성공적 감사 수임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플러스 성장을 이뤄왔다. 무엇보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를 출범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해 왔다. 사업재편 및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시장의 니즈 (Needs)에 선제 대응한 재무자문 부문은 30%의 성장률을, 세무자문 부문은 국내와 해외, 금융, 이전가격 등 전문성을 지닌 세분화된 조직체계로 2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 변화를 선도하며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팅 분야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GKP(Global Korea Practice)는 고객보다 앞선 걸음으로 현지 시장을 이해하고, 최상의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이루며, 고객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과 협신을 다하고 있다.

'The Clear Choice!'

건강한 성장 · 행복한 일터 · 신뢰받는 조직 만들어 갈 것

The KPMG Story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y),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담고 있다. 발표회 현장에서 김교태 CEO는 KPMG Story 중 Vision에 주목하며, ‘우리는 미래에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2020년을 대비하여 ‘The Clear Choice’라는 Vision을 새롭게 선포하며,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 그리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매년 지속 성장을 통한 2020년 매출 6,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Function 및 각 본부 간의 협업과 시장 변화에 맞춘 신상품 개발 등으로 Business Development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원 1인당 수익도 업계 최고로 향상시켜 확고한 Big2 체제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김교태 CEO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문현답을 새롭게 정의하며, 임직원들에게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해서는 업무환경 개선, 해외교육 확대, 업계 최고의 보상을 통해 임직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법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난해 삼정KPMG는 Big4 법인 중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려 업계 최대 규모의 신입회계사를 채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단녹장(棄短錄長)’의 의미처럼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높이 사는 소중한 인재 육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끝으로 삼정KPMG는 타협 없는 ‘Clean Firm’으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

하고, 회계 업계를 바르게 선도하여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갈 것을 결의했다.

법인의 새 비전을 제시한 김교태 CEO는 “우리는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그리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The Clear Choice’, Vision 2020을 선포했습니다. 삼정KPMG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업해 나간다면 우리가 그린 미래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만큼 더욱 큰 목표와 비전으로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갈 것을 당부했다.

‘욕궁천리록 갱상일층루(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 천리를 바라보려고 누각을 한 층 더 오른다는 중국의 시구처럼, Vision 2020 선포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삼정KPMG가 열정과 도전, 혁신의 자세로 성장을 그려나갈 ‘The Clear Choice’를 기대해본다.





스타트업의 믿음직한 성장 파트너! 삼정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

요즘 ‘스타트업(Start-up)’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삼정KPMG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을 위한 Start-up 전담조직을 지난 4월 1일 발족했다.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과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할 ‘삼정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소개한다.

| 바야흐로 스타트업 시대

최근 사물인터넷(IoT), O2O, Fin-Tech, 가상현실(VR/AR), 3D Printing, 인공지능(AI), Big Data, Mobile 가속화 등 기술 환경의 급 변화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창업이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한 인터넷·모바일 기반 기술의 발전과 활용 확대는 스타트업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과와 성공 사례가 부각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업 초기 자금 조달, 기술사업화, 국내 및 해외

시장 판로개척, 회계/세무 전문지식, 조직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명 ‘죽음의 계곡’을 경험하며 도산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이 2013년 기준 41.0%로 미국 57.6%, 이스라엘 55.4%, 룩셈부르크 66.8%, 호주 62.8%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20%나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정KPMG는 지난 4월 1일 KPMG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센터(Start-up Innovation Center, SIC)’를 설립했다. 삼정KPMG SIC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탄생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지속 성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성장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하는 삼정KPMG SIC!

국내 스타트업들 중 상당수가 회계·재무·세무 등 경영 관리적 요소가 취약해 성장 후 자본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정KPMG SIC는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향후 자본시장 진입 시장에 요소를 제거하고 적정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전략 서비스를 비롯하여 회계, 재무, Tax, Financing, HR, 국제통상자문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전기·전자, 정보통신, 제조, 자동차, 소비재, 제약, 바이오 등 24개의 산업 분야 및 서비스별로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고 각각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삼정KPMG SIC의 가장 큰 장점은 전담조직인 SIC를 중심으로 국내 2,50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인력 및 전 세계 26개국에 걸쳐 형성된 KPMG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여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행 지원 까지의 One-stop Solution 제공을 위해 각 Function 간 긴밀한

Core Service Offerings

▶ 글로벌 성장 전략 컨설팅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전략 컨설팅 서비스 제공

▶ KPMG Venture Insights Community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Industry Insight 리포트 제공, VC 커뮤니티 형성 및 워크숍 개최

▶ 국내외 세무 컨설팅

설립 초기 세금 자문, 부가세 환급, Global Tax 등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특화된 국내외 세무 업무 지원

▶ 법률 자문 서비스

경영권 분쟁 해결 및 방지,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 특히 등록 및 회피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

▶ 스타트업 회계업무 자문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재무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주요 재무지표 관리 등 회계업무 지원

▶ IPO 컨설팅

IPO 심사에 문제가 없도록 회계, 세무 재무 컨설팅 제공 및 자료 정비

▶ M&A Total Solution

매수/매도 후보자 물색, 타당성 분석, Valuation, PMI, 자금 조달 등 M&A Total Solution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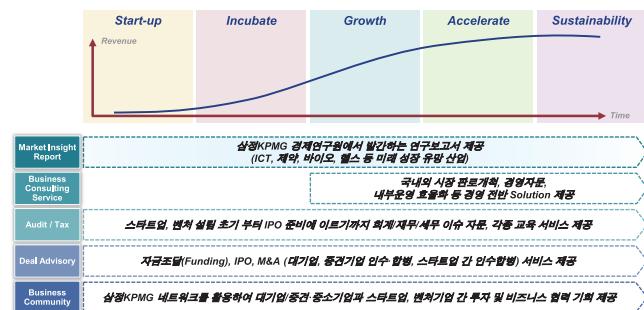
▶ Talent Management

기업 핵심인력 관리, 교육 훈련 및 스타트업, 벤처기업 멘토링 서비스 제공

▶ IT 프로세스 구축 자문

ERP, CRM, MDM 등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적합한 IT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및 자문 제공

Customized Service Throughout Life-cycle



협업은 물론 지역 강소 기업, 글로벌/차이나하이웨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 등 중소·중견기업 자문 노하우 및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특화된 자문 서비스를 갖췄다. 또한, 글로벌 156개국 KPMG 오피스와 35개 주요 도시 내 Korea Desk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벤처기업과 목표 시장 내 잠재적 파트너와의 제휴 및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KPMG의 Tech 산업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신기술 및 시장 트렌드 관련 정기 워크숍 개최 및 스타트업 관련 보고서 정기 발행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에 최신 인사이트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으로 삼정KPMG SIC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국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이뤄 미래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빛날 스타트업을 희망하며, 삼정KPMG SIC는 지금도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파이팅!



CONTACT US

삼정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

윤권현 상무이사(팀 리더)

Tel. 02-2112-7495 E-mail. kyoon@kr.kpmg.com

박상원 이사

E-mail. sangwonpark@kr.kpmg.com

중국의 스타트업, 창커(创客) 열풍과 우리의 기회

중국의 청년들은 '제2의 마윈'을 꿈꾸며 불철주야 스타트업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가진 건 없지만 꿈과 열정으로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내놓는 창업자들을 창조의 창(创, 창)과 사람의 커(客, 객)의 합성어인 '창커(创客, 창업자)'라고 일컫는다. 이번 호에서는 창커 트렌드와 이슈를 살펴보고, 중국에서 새 기회를 엿보는 국내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산 붉은 유니콘들

2016년 2월 미국 스타트업 정보업체 CB Insight가 집계한 세계 유니콘(Unicorn,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비상장 기업) 순위에서 중국이 미국(9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5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붉은 유니콘들의 높은 가치평가는 중국의 창커 1세대들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왔음을 보여준다. 중국 인터넷 투자 플랫폼 티엔티엔토우(天天投)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지속되는 경제 둔화 속에서도 전년 대비 전체적인 투자 대상회사가 늘어났으며,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투자 대상회사의 수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투자 분포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금융, 기업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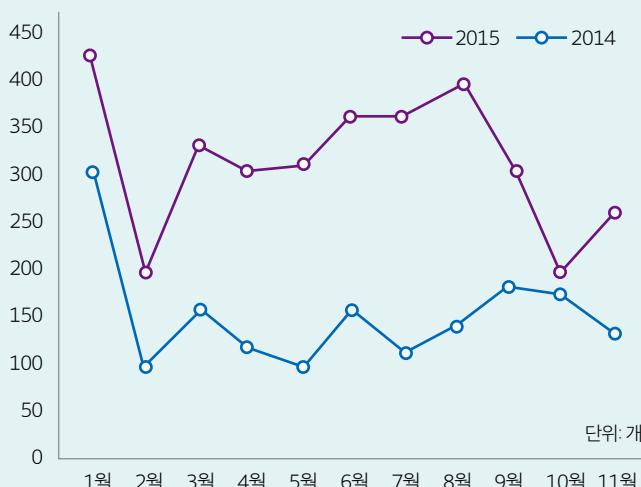
르게 투자가 이뤄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중국의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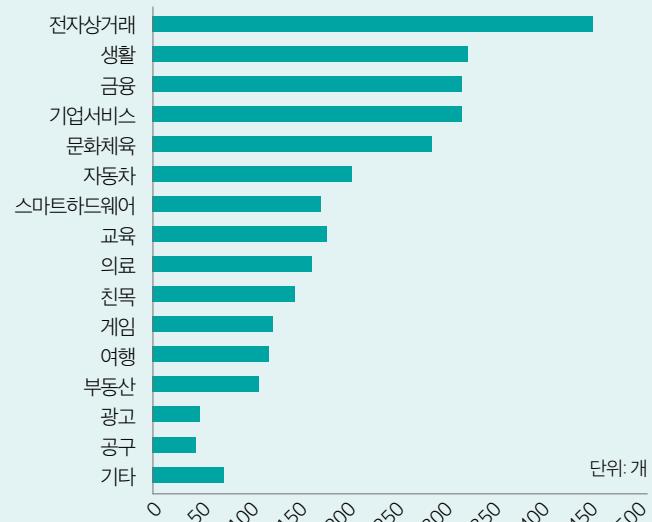
중국의 창커들의 성공 코드는 중국인들이 살아온 과거를 집약해 놓은 문화와 중국인들이 살아갈 미래를 집약해 놓은 소비 트렌드 속에 숨겨져 있다.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사례를 살펴본 바, 중국의 대표적인 4代 문화(샤오황띠, 판시, 아이미엔즈, 장지아)와 4代 소비 트렌드(편의추구, 합리적인 소비, 웨빙, 코스모폴리탄)에 기반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4代 문화를 통한 성공 사례로는 1가정 1자녀 정책으로 인해 외동 자녀로 출생하여, 부족한 걸 모르고 자란 세대인 샤오황띠(小皇帝) 문화를 공략해서 프리미엄 아동용품 거래 플랫폼을 성공시킨 '베이비

2015년 스타트업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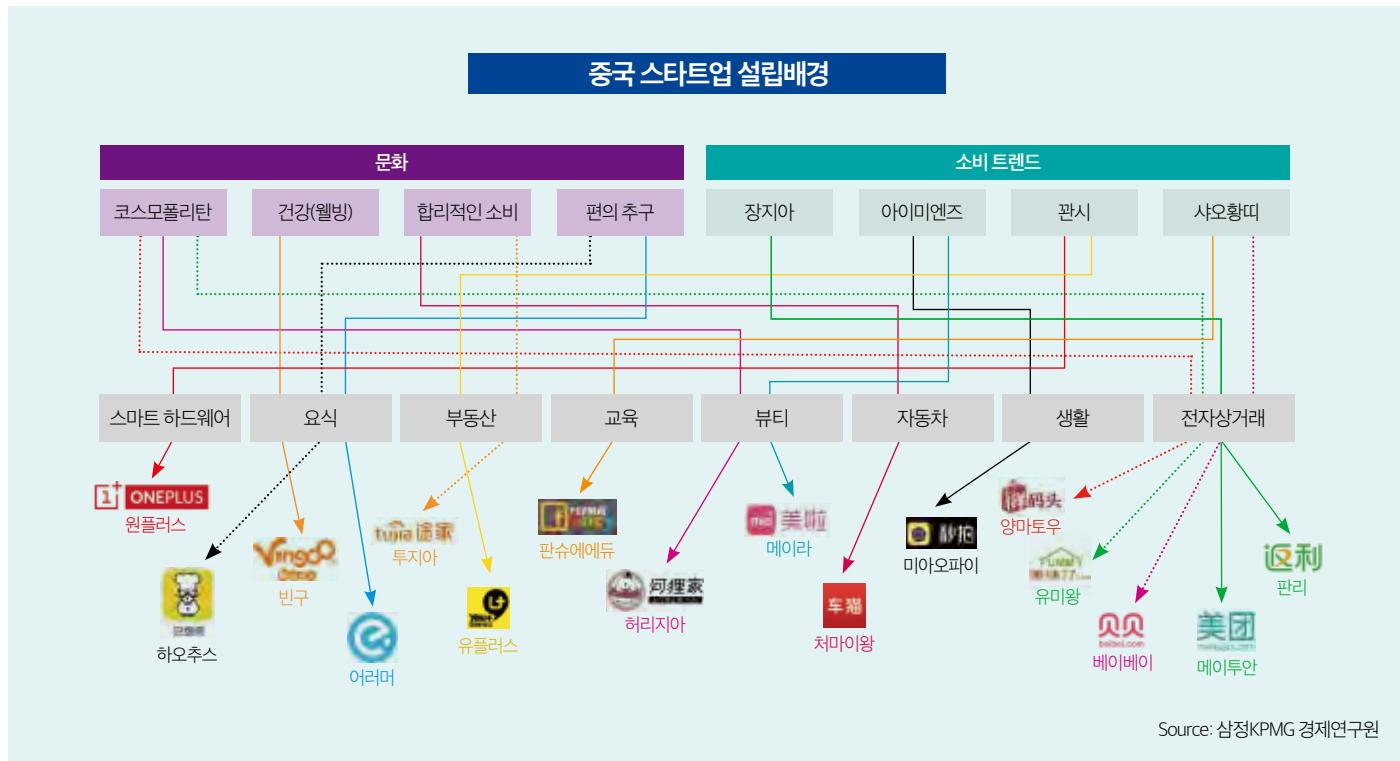
스타트업 투자 현황



분야별 투자 분포



Source: 티엔티엔토우(天天投)



이(Beibei)가 있으며, 중국인의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인 아이미엔즈(愛面子)를 기반으로 각자의 미용 기술을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성공한 '메이라(Meila)'가 있다. 또한 중국 특유의 가격 흥정 문화인 장지아(讲价)를 이용해 새로운 시장을 연 '메이퇀(Meituan)'은 여전히 중국의 대표 공동구매 사이트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4대 소비 트렌드에 따른 스타트업 성공 사례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비스가 만족과 편의를 위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는 젊은층을 공략해 포장·배달서비스로 성공한 '어러머(Eleme)'와 과시의 소비 풍토에서 합리적인 소비로 변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를 공략한 중고차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처마이왕(Chemaiwang)'과 중국판 에어비앤비 '투지아(Tujia)'를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웰빙 트렌드에 따른 신선제품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즉석 오렌지 주스 자판기 서비스를 제공한 '빈구(Vingoo)'와 더욱 세련되고, 예뻐지고 싶은 중국 여성들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성공한 뷰티 서비스 플랫폼 업체 '허리지아(Heliija)'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스타트업이다. 이처럼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문화와 소비 트렌드가 산업과 융합되어 성장 중이며, 중국의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고 산업에 접목해 본다면 미래의 창업들의 생각을 뛰어볼 수 있다.

| 中 진출 희망하는 韓 스타트업,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중국 스타트업이 태동(胎動)하는 현시점에서 한국 스타트업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로 한국 내 젊은 중심(中心, 중국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와 트렌드에 익숙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유학생 등 지한파(知韓派)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중국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풍부한 지식을 활용해 미래 중국 스타트업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둘째로 중국 진출을 고려한 한국 스타트업들은 중국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대부분 기업들은 관시, 네트워크 확보 등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특히, 규모와 자금력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라면 벽이 더 높게 느껴질 것이다. 현지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중국 스타트업과 관계를 만들고 협업을 한 기업이 중국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들에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셋째는 한·중 젊은이들의 신(新)문화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와 제품을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구도에서 향후에는 한국과 중국이 상호 영향을 주며 교류하는 구도로 점차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의 경계선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적인 것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맹목적 생각을 버리고, 한국과 중국의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CONTACT US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박도휘 선임연구원

Tel. 02-2112-0904 E-mail. dohwipark@kr.kpmg.com

The Life Care Company, Coway



1989년 설립된 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매트리스 케어 렌탈,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생활환경 브랜드 개발과 렌탈 비즈니스로 업계 1위를 지키며 대한민국 생활환경 가전시장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이끌었다. 최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라이프 케어 솔루션 '아이오케어(IoCare)'를 새로운 사업모델로 삼아 렌탈 회사에서 라이프 케어 솔루션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

| 국민 생활건강 솔루션 회사

코웨이는 창립 이래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생활환경 가전 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이에 머물지 않고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침대 매트리스 케어 렌탈 서비스를 개척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코웨이는 201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영업이익은 27.1% 증가해 창립 이래 사상 최대치인 매출 2조 3,152억 원, 영업이익 4,633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

1위로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도 지녔다. 지난 4월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사 인터브랜드가 주관하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6(Best Korea Brands 2016)'에서 코웨이가 'Top Riser'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코웨이는 2015년 대비 브랜드 가치 상승률이 44%나 증가하며 50대 브랜드 중 브랜드 가치 상승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로 꼽혔다.

코웨이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며 성장

한 회사가 아니다. 코웨이가 먼저 만들어서 제안한 제품과 서비스에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생활방식이 바뀌었고, 그 변화를 주도하며 성장해왔다. 코웨이의 경쟁력은 강력한 코디 시스템과 렌탈 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물과 공기 관련 R&D 자산,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선제적 프리미엄 전략 등에 있다. 1998년 업계 최초로 코디 시스템을 도입했고, 렌탈 비즈니스를 통해 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디는 고객 집을 방

문해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관계로 감성적 유대감까지 형성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업계를 선도하는 차별된 기술력도 갖췄다. 2008년 환경기술 종합연구소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코웨이 R&D센터’를 서울대 연구공원에 설립했다. 250여 명의 연구진을 보유한 이곳은 국내 최초로 국제수질협회(각종 물 처리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인증 담당)로부터 공식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코웨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에 코웨이만의 차별적 핵심역량인 케어(Care) 가치를 결합한 ‘아이오케어(IoCare)’ 사업이 그것이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매일 고객이 쓰는 제품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코웨이는 사람의 환경과 생활습관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일례로, 전국 1,200여 곳에 공기질 측정 센서를 장착한 후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내공기질 인덱스와 16개의 실내공기질 유형을 독자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각 가정의 공기질 유형에 맞는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6’에 최초로 참가해 아이오케어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6개 제품이 총 8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해, 코웨이의 차별된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KT 황창규 회장은 전국경제인연 합회 간담회에서 “코웨이가 환경가전 제조 렌탈회사에서 국민 생활건강 솔루션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COWAY

|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기업

젊고, 역동적인 기업문화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자부하는 코웨이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사이에 자유롭게 1시간을 활용하는 ‘점심시간 탄력 운영제’를 도입했으며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을 정시 퇴근하는 ‘파밀리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돋고 있다. 또한, 직원 가족 초청 프로그램인 ‘코웨이데이(Coway Day)’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신입사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허물없이 어울리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해 임직원의 피로를

풀어주는 ‘헬스케어’를 운영 중이며, 휴게실에는 각종 운동기구를 구비해 활력을 얻도록 했다. 이외에도 본부장과 직원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하이팅(High-ting)’은 물론, 사내 온라인 커뮤니티 ‘룰루랄라’를 운영하며 전 임직원의 소통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웨이는 GWP(Great Work Place)코리아 주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2011년부터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착한믿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업

코웨이의 나눔경영은 ‘우리가 하는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라는 믿음을 담은 경영정신 ‘착한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캄보디아 현지의 열악한 수질환경과 식수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년 동안 우물파기 봉사를 진행했고, 2015년 12월 1,000개의 우물을 완성해 10년의 약속을 지켰다. 지난해 8월부터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진행한 ‘착한 정수기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기증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소액정기기부를 통해 물 부족 국가 식수 지원, 아프리카 학교 건립 등의 사업을 후원하는 ‘한뼘나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2009년부터 부산 등의 지역에서 코웨이 서비스 전문가 ‘코디’ 등이 자발적으로 동전 모금을 통해 겨울철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듯 코웨이는 업계 1위로서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미 있는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 라이프 케어 솔루션 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코웨이의 혁신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투자자 공략 3대 포인트 ‘시장성’ ‘경쟁력’ ‘투명성’



삼정KPMG CEO
김교태

CEO
COLUMN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자금유치, 취직, 보험판매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람들의 사례가 나온다. 여기엔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싱 역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투자 포인트를 고려할 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장성’일 것이다. 비즈니스의 본질이 수요가 존재하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라 본다면,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업계획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일 것이다. 계획하는 제품이 왜 필요하고, 그 제품이 얼마나 팔릴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파이낸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부 경영자들은 거시적인 지표와 사회 현상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최근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이 높고 노령화가 시작돼 헬스케어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안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그 기업만이 가진 ‘경쟁력’에도 집중한다. 아무리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거나, 이미 누군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인력이 근간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그들이 가진 기술력의 독창성과 스페셜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허 현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으므로 파이낸싱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항목을 잘 조합하여 성공한 사례로 셀트리온을 들 수 있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 비싸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저가 바이오 복제약품이 등장하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각국 식약청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장의 초기 진입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

을 얻었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과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 등 외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투명성’을 반드시 고려한다. 초기 사업계획을 믿고 투자했지만 경영자의 횡령이나 사적인 자금 전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은 명확한 자금의 용도를 제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하고, 이사회 등 경영기구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경영자로서는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외부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현신적인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벤처업계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어떠한 창업자가 투자자 앞에서 “난 이 사업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하나님인 집을 팔아 얻은 돈을 모두 투자하였고 내 모든 인맥을 쏟아부었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감동받은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창업자의 현신적인 자세는 투자자로 하여금 신뢰를 주고,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 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많은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파이낸싱 업계가 풋옵션(Put Option)과 같은 원금보장성 장치에 치중하고, 사업의 취지와 비전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자환경도 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안정적 투자가 힘들뿐더러 수익률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환경에 봉착한 시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기업들의 등장과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앞서 살펴본 투자자 관점에서의 파이낸싱 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를 희망해 본다.

<본 기고문은 2016년 3월 17일자 조선비즈 ‘김교태 경영산책’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고려해야 할 통상전략 ‘글로벌 생산기지 활용’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박문구 전무

ADVISORY



그간 한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있었고, 그 노력의 결과 FTA 모범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은 가입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통해 자유무역 열등생이었던 일본의 FTA 지위가 높아졌다.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까지 성공시킨 베트남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한국이 자랑하던 FTA 허브 국가 지위까지 넘보고 있다.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경우, 중국보다 낮은 임금과 높은 생산성을 갖추고, TPP 및 EU와의 FTA로 인해 자유무역의 요충지로 격상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생산기지 마저 베트남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TPP 가입과 그에 따른 FTA 경제영토 확장을 넘어서는 통상정책의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 신호 제조 강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은 TPP와 EU FTA로 인해 제조업 수출 허브 국가로 거듭난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적극 활용하여 제조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한국 내 생산기지는 연구 개발 및 혁신 테

스트베드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
TPP와 FTA를 통한 한국산의 수출증대만 목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생산기지의 유연한 활용 및 한국 제조업의 혁신적 고부가가치화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멕시코 진출 자동차 및 부품기업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외에도 TPP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전진기지를 확보하게 됐다. 베트남 진출 의류, 신발, 가방 등 봉제기업들은 TPP 외에도 EU와의 FTA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미국과 EU의 대형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기업들은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며 이윤을 창출할 것이고, 그 이윤 중 상당 부분은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그 밑거름은 스마트카 제조 및 그와 융합된 서비스업(예를 들어, 도시 교통 인프라, 리스, 렌탈,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 컨텐츠 등)을 육성하는 데에 사용되고, 또한 노동집약적이라서 해외 이전한 봉제산업을 소프트웨어와 로봇 중심으로 혁신시켜 한국으로 회귀하게 만든 후, 이를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중심의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으로 육성하는 데에 사용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기본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재정립되어야 한다. FTA 체결, TPP 가입 등을 통해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되, 글로벌 생산기지를 적극 활용하고 제조업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신상품, 신서비스, 신산업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확장하는 미래형 통상정책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한국 산업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정부, 산업,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본 기고문은 이코노미조선 3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Purpose Story

이색삼정★

Talk! 연결고리

가자 세계로!

Love Family

행복충전소

Samjong News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이채능 S.Manager가 김태우 S.Manager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지구 반대편에서도 밤낮을 잊고 법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2 이채능 S.Manager



안녕하십니까! IM2본부 이채능입니다.

먼저 <Culture Relay>를 통하여 법인 동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를 주신 Global Tax본부 이성우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면서 저가 부족했던 점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좋게 보주셔서 쭉스럽습니다.

이번 기회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은 멕시코 Korea Desk 김태우 S.Manager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한 고객사가 2014년 멕시코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유사한 시기에는 멕시코 Korea Desk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현지의 생생한 정보들을 고객사에 공유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왔습니다. 멕시코에 법인을 두고 있는 고객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 Korea Desk가 없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우 S.Manager님과는 수시로 이메일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아 왔는데, 멕시코 현지 상황을 저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해주었습니다. 이메일로 설명하기 부족한 이슈들은 유선으로 함께 정리했던 기억도 나네요. 한국과 멕시코가 밤낮이 다르니 하루를 이틀처럼 일한 기억도 있고요. 제가 담당한 멕시코 업무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하나의 팀처럼 협업하여 준 김태우 S.Manager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S.Manager님에게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를 추천합니다. 힘들었던(?) 수험생 시절에 틈틈이 읽고 했는데, 400년 전 그 분이 제게 가가아이 다가왔었습니다. ‘힘내라고!’ 그리고 보니 김태우 S.Manager님을 실제로 봤 적이 없는데 오래도록 함께 알고 지냈던 분으로 느껴지네요. 파견업무 마치고 귀국하시면 꼭 뵙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김태우 S.Manager에게 책 『칼의 노래』를 선물합니다!’



『칼의 노래』 김훈 지음 / 문학동네

2001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 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당대의 영웅이자, 정치 모략에 희생되어 장렬히 전사한 명장 이순신의 생애를 그려냈다. 작가는 시대의 명장 이순신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함께 표현해내며 사회 안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Our Higher Purpose

이번 호에서는 KPMG Story를 앞장서서 만들어 온 'FY2015 KPMG Story of the Year'의 주인공들을 만나본다. 이들이 펼쳐온 KPMG Story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 그려가야 할 KPMG Story는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 'KPMG Story of the Year' 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4월 25일 열린 'FY2016 사업전략 발표회'에서는 'KPMG Story of the Year'를 선정했다. 'KPMG Story of the Year'는 업무 속에서 KPMG Purpose의 내재화 활동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Purpose와 더불어 KPMG Story의 각 요소, Value, Vision, Strategy, Promise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본부 또는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ICE2 본부의 오재영 S.Manager가 개인 부문을, 본부 부문에서는 TP(Transfer Pricing) 본부가 영예를 안았다.

개인 부문

| '즐거운 회계감사~' - ICE2본부 오재영 S.Manager

'KPMG Story of the Year' 개인 부문을 수상한 오재영 S.Manager의 Purpose는 '즐거운 회계감사'이다. 오재영 S.Manager가 생각하는 '즐거운 회계감사'란, 고객이 스스로 회계기준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하여 합리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도록 돋는 것이며, 감사인에게는 Audit Risk를 줄이고 감사의 효율화를 높이는 것으로 즉, 서로가 즐겁고 행복한 Win-Win 감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오재영 S.Manager는 평소 본인의 Purpose를 실천해, 조직 내에서는 존경과 사랑을, 고객으로부터는 신뢰와 감사를 받고 있다. 오재영 S.Manager가 감사를 맡은 한 회사의 감사이슈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해 그의 Purpose를 살펴본다.

수익인식에 대한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회계 처리를 적용하는 사례를 두고, 고객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오재영 S.Manager를 포함한 감사팀은 회사의 의문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년 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해당 수익인식 회계처리를 바로잡고자 도전했다. 결국, 회계기준원 연석회의까지 안건을 상정한 끝에

고객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려 7개월 동안 KPMG의 품질관리실의 지원과 타 유사 사례 수집, IFRG(영국 런던에 소재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Group으로 KPMG의 조직)의 의견 수렴 및 회계기준원 연석회의 위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현안을 설명하는 노력 등을 통해 얻은 성과였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CFO는 공시담당 실무 모임 등에서 삼정KPMG의 전문성과 열린 소통을 높이 샀으며, 고객사의 CEO는 감사팀을 수차례 초청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이처럼 오재영 S.Manager의 뛰어난 업무와 문제 해결 능력은 많은 고객으로부터 Best Team으로서 신뢰를 부여하고, KPMG의 Purpose를 외부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KPMG Story of the Year' 수상 소감



오재영
S.Manager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을 주신 김교태 CEO님 이하 전 삼정KPMG 가족들과 저를 추천해 주신 ICE2 염승훈 본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처음 제정된 상에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어 너무 영광스럽지만, 수많은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면서 최고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삼정인이 많은 것을 알기에 저의 수상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 Purpose는 고객과 삼정KPMG 그리고 팀원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회계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부인 사이의 남편처럼 모두를 즐겁게 만족시키는 회계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듯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PMG Story of the Year' 개인 부문 수상의
오재영 S.Manager와 김교태 CEO의 모습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본부 부문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업들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Transfer Pricing 본부

TP본부는 법인의 Purpose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특히 본부원들 모두가 함께 '조세환경을 보다 더 나은 방향을 이끌고, 고객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파트너부터 솔선수범하여 협업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본부 워크숍을 통해 본부의 Purpose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직급별,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여 Purpose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구성원들이 Purpose를 더욱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무엇보다 'Vision 2020'의 공감을 이끌었다. 앞으로도 TP본부는 Purpose를 바탕으로 고객이 이전가격 과세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찰력 있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고객 성장과 사회 발전에 공헌해 나갈 것이다.



본부의 'Purpose'를 함께 고민한 TP본부 워크숍 현장



'KPMG Story of the Year' 본부 수상에 빛나는 TP본부



TP본부장
강길원 상무

'KPMG Story of the Year' 수상 소감

'KPMG Story of the Year'의 수상은 결과보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본부의 여정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신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뤄가고 있는 본부원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기에 이상을 수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여정을 멈추지 않고 'KPMG Story of the Year'를 수상한 모범적인 본부의 위상을 이어가고 앞으로 멋진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정KPMG 요가스타 ITS본부 이인영 직원

“바쁜 일상 속, 요가로 쉼표 찍어요!”

신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심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가. 요가의 매력에 빠져, 요가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이인영 직원(ITS본부)은 요가로 신체 밸런스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까지 톡톡히 맞춰가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도 요가로 힐링 쉼표를 찍는 그녀만의 요가 스토리를 들어본다.



“건강한 라이프, 요가면 충분해요!”

“요가, 시작하기 전에는 좋은 운동이란 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요가야 말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건강한 운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따라 요가를 시작한 지도, 올해로 꼭 8년째 된다는 이인영 직원. 체형교정, 유연성 향상 무엇보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요가의 진정한 매력은 마음 수련에서 온다고 했다.

“요가는 어머니께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대학교 여름방학 시절, 요가

의 장점을 재차 강조하시던 어머니께서 이번 기회에 함께 배워보자고 하셨어요. 막상 배우고 나니 몸도 개운하고, 기분도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요가에 매력에 끌 빠지게 됐어요.”

‘24시간이 모자라~’라는 노랫말처럼, 그녀는 하루를 요가로 가득 채웠다. 당시에는 오전, 점심, 저녁시간, 하루에 3번 요가 수업을 들으러 집을 나섰단다. 지쳤을 법한 데, 그때는 마냥 요가를 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흔히들 요가에 대한 장점을 신체 균형을 맞춰주고, 몸을 아름답게 해주는 외형적인 부분에 초첨을 맞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



홈 요가를 하는 이인영 직원의 모습.

지만, 제가 느낀 요가의 특별한 매력은 긍정적인 내적 변화예요. 현대 인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요가를 시작한 후에는 하루에 1시간 혹은 짧게는 20분이라도 꼭 요가를 해요. 요가를 하면 그날 하루를 되돌아 볼 수 있고, 정신이 바로 선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한 힐링인 것 같아요.”

1년 만에 요가강사 자격증 취득!

열정적인 모습으로 요가를 즐겨 하니 요가강사 눈에는 그녀가 기특해 보였는지, 요가를 배운 지 1년 되던 해 ‘요가강사 자격증’을 권했다.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요가를 재미있어 하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좋으셨나봐요. 당시 수업에는 체육학과 혹은 무용학과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다리를 너무나도 쉽게 찢는 이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쉽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었고, 더 열심히 배워보고 싶어서 강사 자격증에 도전했어요.”

그녀는 요가강사 자격증은 누구나 도전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론시험은 물론 실제 많은 수강생들 앞에서 요가수업을 해야 하는 실기시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했다. “수강생들 앞에서는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요가 자세도 완벽해야 하고, 또 요가를 가르치는 능력까지 있어야 하니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운 좋게도 합격했어요! 하하. 이후에 실제로 학원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 경험은 못했지만, 단짝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가를 가르치며 함께 요가 하는 시간도 보냈었죠.”

그녀는 호주 유학 시절에도 요가를 지속해왔고, 법인에 입사해서도 아침 시간을 쪼개가며 요가를 배웠다.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일산에 살았는데요, 일산에서 역삼까지 거리가 꽤 멀지만 아침 시작을 상쾌하게 보내고 싶어서 법인 근처에서 요가를 배웠어요. 아침 요가 수업을 듣는데, 법인 분들도 꽤 계셨어요. 시간이 없을 땐, 퇴근 후에도 요가를 했어요. 하루에 시작과 마무리를 요가로 하면, 확실히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요.”

| “버킷리스트로 일과 삶 균형 맞춰요~”

올해 3월, 행복한 웨딩마치를 올린 그녀는 요즘에는 퇴근 후 남편과 커플요가를 즐긴다는 깨소금 넘치는 이야기도 전해왔다. “신혼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요즘에는 홈 요가를 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요가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함께 동참하곤 해요. 사실 해외에서는 남녀노소 구분 않고 요가를 많이 하거든요. 남성 분들도 요가를 배우면 몸에 유연성을 더하고 삶의 활력도 줄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지난해에는 요가 외에도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해 바닷속 넓은 세상을 경험한 것.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삶은 분명히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됐어요. 목표를 세우고 나면, 어떻게든 도전하기 위해 작은 시도라도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시도가 쌓이다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을 살다 보면 도전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그녀의 제안처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워가는 작은 재미로 삶을 살아가도 즐거울 것 같다.



거북목 증후군, 이 요가면 충분해! 이인영 직원이 전하는 사무실 3분 요가



효과 혈액순환 증가로 인한 목과 어깨통증 감소

순서 ①-② 앞 목 늘이기: 합장 후 엄지로 턱을 밟힌 후 천장을 향해 들어올린다. 근육과 신경의 긴장 해소에 도움을 준다.

③ 뒷 목 늘이기: 마시는 숨에 양손을 각지에 껴 뒤통수에 올린 후 내쉬는 숨에 손은 뒤통수를, 뒤통수는 손을 서로 밀어낸다. 앞으로 빠진 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도움을 준다.

★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삼정KPMG에서 만난 동료와 선후배 중 남다른 취미 활동과 흥미로운 경력을 소유한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Channel>에서는 신규 칼럼 ‘이색삼정스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생활하는 삼정인을 소개합니다. 추천해주시는 삼정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삼정KPMG의 형제&자매 이야기

예부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다. 그만큼 혈육의 정이 깊다는 의미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한 혈육의 정으로 법인에서 함께 근무 중인 형제, 자매를 만나보았다. 이들이 들려주는 진정한 우애와 솔직담백 법인 생활에 대해 들어본다.

| 형 혹은 언니 따라 삼정KPMG로!

피영: 올해, 미국에 살던 동생이 한국으로 넘어와 삼정KPMG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딱 한 달이 되었네요. 우리 형제는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저는 포렌직(Forensic) 분야에서, 동생은 Global Tax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 이민을 간 후 동생은 한국 생활이 처음이라 많이 어색할 거예요. 저는 대학 원 시절 한국에 3년 정도 살았기에 동생보단 아주 잘 지내고 있지 만요.

피성: 아직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많아요.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인터넷 설치, 분리수거 하는 법, 심지어 보일러 끄는 방법까지 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물론, 형수님 찬스도 자주 썼고요. 하하. 사소한 것까지 물어봐서 많이 불편할 텐데, 매번 친절하게 알려주는 형이 참 고마워요. 사실, 삼정KPMG에 입사하게 된 것도 형의 영향이 커요. 어릴 때부터 ‘롤모델’인 만큼 형이 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형을 따라 같은 학교, 같은 회사까지 다니게 되었어요.

권기문: 역시 동생은 형이나 언니를 닮아가게 되나 봐요. 저 역시도 언니의 권유로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시험을 공부하게 됐어요. 언니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고 둘 다 동시에 CFA 레벨2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죠. 이후 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니면 좋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삼정KPMG에서 애널리스트를 모집했고 운 좋게 둘 다 함께 합격했어요.

권기명: 동시 입사라, 너무 기뻤어요. 한데, 본부는 달리 배정됐지요. 생김새가 닮은 쌍둥이지만, 성향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동생은 저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스타일이지만,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기에 각 성향에 맞게 본부를 배정해주신 듯해요. 특히나, 동생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도전을 좋아하기에 재무자문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다루는 현재 본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 함께 일하는 즐거움!

피영: 동생과 함께 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제일 기뻐하셨어요. 두 아들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셨죠. 물론, 저 역시도 동생이 한국에 와서 기뻤고요. 한국에 생활하며 1년에 1, 2번밖에 가족을 볼 수 없어 늘 가족이 그리웠거든요. 이제 동생도 한국에 있으니 부모님께서 자주 한국에 오실 것 같아요. 앞으로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많을 것 같아 행복하네요.

권기문: 저와 언니도 함께 일하는 걸, 부모님께서 제일 기뻐하셨어요. 신기해하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좋은 법인에 둘이 함께 일할 수 있느냐?’며,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다독여주세요. 무엇보다 저는 언니와 함께 업무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 좋아요.

권기명: 물론 서로 중요한 사안은 공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서로 하는 업무가 유사하다 보니 힘들어하는 점도 비슷하고, 쌍둥이로서 느끼는 감정들도 비슷해요. 그런 점들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가끔 업무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퇴근 후 함께 ‘치맥’을 즐기기도 하죠. 하하.

피성: 와, 치맥 좋네요. 저와 형은 본부가 달라 업무적인 어려움은 공유하지 않지만, 대신 주말에 취미 생활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어요. 야구 관람 혹은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 형과 함께 제대로 주말을 즐기고 있지요.

|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줄 ‘가족’이 있기에

피영: 마냥 어린 것 같던 동생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언제 저렇게 컸지?’ 싶을 정도로 틈틈해요. 이제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는데 한국 생활도, 업무도 빨리 적응해서 멋진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길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동생에게 멋진 형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피성: 법인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매너까지도 세심히 알려주는 형이 있기에, 더욱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언제나 멋지게 잘 해오고 있지만, 저도 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하.

권기명: 1분 빨리 태어난 언니이긴 하지만, 동생은 늘 지켜줘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한데, 법인에서 보니 자랑스러울 만큼 많이 성장해있더라고요. 제가 갖지 못한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동생에게 늘 힘을 줄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

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Valuation Specialist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에요.

권기문: 사실, 얼마 전 언니가 고객사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우리 언니구나!’ 싶었어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틈틈해 보였어요. 저게 언니는 ‘제2의 엄마’이자, 가장 ‘친한 친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만큼 삼정 KPMG에서 둘 다 재무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 법인의 건강한 성장에도 기여하고 싶어요.



싱가포르 Korea Desk 정재욱 S.Manager

세계 속에서 전진하는 나라, 싱가포르



‘전진하라 싱가포라!(MAJULAH SINGAPURAI)’. 이는 2015년 싱가포르 개국 5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에서 온 국민이 열광하던 표제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가장 하기 좋은 나라, 아시아에서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꼽힌 싱가포르. 이번 호에서는 성장을 향해 힘차게 전진 중인 싱가포르에 대해 정재욱 S.Manager가 소개한다.

|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작은 국가이지만, 1인당 GDP가 7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량은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교역의 중심지답게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수년째 공항순위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 세계 3대 오일허브 등이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경제를 부유한 국가로 만드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개발 인프라, 정치적 안정성, 개방된 비즈니스 정책,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것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존중 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 187,700개에 달하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즈니스 오너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장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로, 또 아시아의 다른 신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싱가포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2016년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 보고서(The World’s Easiest Place to Do Business 2016 Report)’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89개국 중 비즈니스 하기 가장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됐고, 세계 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아시아에서 최상의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미국 조직 인사 컨설팅회사 ‘머서(Mercer)’가 발표한 ‘2016년 세계 생활환경 조사(Quality of Living Survey)’에서는 삶의 품질에 대해 최고의 아시아 국가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CONTACT US

싱가포르 Korea Desk 정재욱 S.Manager
Tel. +6565085739 E-mail. jamesjung@kpmg.com.sg



1. KPMG 싱가포르 클럽하우스의 75주년 기념 장식, 2. KPMG 싱가포르의 Dance and Dinner (D&D) 파티의 한 장면, 3. 밸리로 떠난 본부 여행 중 저녁행사 장면

싱가포르인의 라이프 스타일

싱가포르는 3세기경 중국 상인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해, 13세기 경 수마트라 스리위자야(Srivijayan) 왕조의 왕자가 싱가포르에서 사자를 목격하고 '싱가푸라'라고 명명했던 것이 국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550만 명 정도이며, 다민족 국가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층이 아닌 일반 다수의 국민들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말레이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 도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적도와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날씨가 매우 덥고, 다민족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발달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리콴유라는 초대 수상의 내각 주도하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보다 강력한 경제 사회정책에 대한 집행을 통해 국가를 통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회제도 등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길거리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평소 생활 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껌을 씹는 것 금지, 음료수를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시는 것 금지, 열대과일 두리안(durian) 을

버스나 지하철에 들고 타는 것 금지, 입법 추진 중인 향이 있는 담배 판매 금지, 전자담배 금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중국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중국인과의 비교 발언을 매우 싫어하기에, 되도록 언급을 삼가야 합니다.

동남아의 헤드쿼터, KPMG 싱가포르

KPMG 싱가포르는 1941년 설립 이래 질 높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 현재는 약 2,500명의 전문가들이 근무 중이며, 싱가포르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 선정 2,000개의 글로벌 회사 50%를 KPMG 싱가포르가 감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상장사의 35% 또한 KPMG 싱가포르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KPMG 싱가포르의 업무 모습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라는 것인데, 매니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작년 KPMG 싱가포르 사업계획 발표 때에 사회자가 각 나라 국적을 손을 들어 확인해본 결과 23개 국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성 파트너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본부 파트너 10명 중 6~7명이 여성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KPMG 싱가포르 오피스에는 전 세계 KPMG Office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KPMG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식사와 각종 음료, 심지어 주류도 판매하고 있으며 게임기, DVD 플레이어, 포켓볼 등이 구비되어 있어 KPMG 싱가포르 직원과 고객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을 이뤄가는 싱가포르 Korea Desk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제도적 안전성 및 낮은 세제에 매력을 느끼고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Korea Desk 가 설립된 지 아직 5~6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싱가포르와 함께 싱가포르 Korea Desk도 급속도로 매년 큰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비스 질과 인재를 바탕으로 많은 현지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Korea Desk 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Clear Choice를 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Korea Desk는 삼정KPMG의 든든한 지원과 더불어 고객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 특집

찰칵! 가족과 함께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Channel>에서는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해 행복했던 순간을 공유하는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삼정인과 그 가족이 함께 만든 행복한 일상을 담은 사진을 함께 살펴보자.



김광석 부장 (삼정KPMG 경제연구원)

봄을 맞아, 딸 별희의 인생 첫 번째 벚꽃 놀이를 다녀왔습니다. 꽃을 참 좋아해서 집에 있는 화분들에도 매일매일 물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꽃을 보니, 그리고 벚꽃이 마구 흘날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박명수 SSenior (ICE1본부)

우리 가족의 첫 여행지, 가평 스위스 마을에서 찰영한 사진입니다. 아이가 즐거워할 것을 예상했지만, 이 사진을 찍고 내내 짬들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미세먼지로, 아 이와 아내가 감기에 걸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니중에 아이에게 <Channel>에 실린 사진으로 지난 얘기를 들려주면 의미 있을 듯합니다.



오의택 S.Senior (B&F1본부)

작년 10월에 태어난 아들 승현이와 함께한 첫 여행으로, 처가인 완도를 방문했습니다. 첫 여행지는 완 도에서 배 타고 45분 거리의 청산도로 정했습니다. 승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씩씩하게 배도 타고, 봄 햇살 아래서 유채꽃도 구경했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 유모차를 딥답해했지만, 힘든 겨울을 지나고 단꿈 같았던 우리 가족의 새봄맞이였습니다.





이승훈 Associate (Deal Advisory2본부)

고향인 포항에 내려가, 어머니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다 불교신자 이신 어머니를 위해 경주 '골굴사'에 가게 됐습니다. '골굴사'는 선무도 본원으로, 매일 선무도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공연 후에는 기념 촬영도 이뤄지고요. 어머님과 저는 재미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었는데 소녀같이 해맑은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남혜영 대리 (Audit 임원실)

올봄, 대구로 1박 2일 가족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조금은 오래된 어린이회관에 방문하여 100원짜리 놀이기구도 타보고 즐거워하는 아이들만큼이나, 저 또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었던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김철수 상무 (TAX)

가까이 있을 땐 늘 투정만 부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기 부끄럽지만 떨어져 있을 때 온갖 스트레스로 힘들 때 그 소중함과 절실햄을 간절히 느끼게 되는 내 가족 ♥♥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제주도 에코랜드에서)



강지민 대리 (ATO)

법인에서 진행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오랜만에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늘 아이 사진을 찍으면 엄마나 아빠가 빠졌는데, 모두 함께한 가족사진을 보니 매우 뿌듯하네요



정금환 직원 (총무팀)

자질 때 핸드폰에 저장된 내 아들, 내 딸의 활하게 웃는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의 아빠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삼정KPMG는 임직원들이 Work & Life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Benefit Program을 지원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부모님에게 선물을 전하는 ‘부모님을 뵙습니다’와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는 ‘아빠가 간다’ 이야기를 소개한다.

부모님을 뵙습니다!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ATO본부 서민석 Associate

매월 〈Channel〉을 통해 ‘부모님을 뵙는다’를 눈여겨 보다가, 올해 퇴직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시즌과 함께 아버지의 퇴임식 일자가 맞물려, 고향인 부산으로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부모님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삼정KPMG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3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아버지께 제대로 표현 한 번 해드리지 못했는데 막상 직장인이 되어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게 되신 아버지,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DPP본부 엄정복 Director

부모님은 경남 창원에 살고 계셔서 명절이 아니면, 잘 찾아뵙지도 못하기에, 아버지의 회갑에 법인의 지원을 받아 선물을 드리는 것은 자식으로서 나름의 의미가 큽니다. 아버지의 회갑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바다낚시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경남 거제에 있는 가족형 펜션을 예약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회갑연을 준비했습니다. 회갑연 당일 거제 펜션에 도착해 동생들과 음식 준비, 회갑상 차리기, 현수막 설치 등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회갑연이 시작되어, 아버지께 감사패도 드리고, 과일바구니도 전달드리며, 동생들과 절도 올리면서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간다!

“사랑하는 딸, 아빠가 언제나 응원할게!”

L&D본부 조상용 S.Manager

예린이에게,

별써 초등학생이 되어, 젊다고 착각하고 있는 아빠를 학부형으로 만들어준 우리 예쁜 딸 예린아. 초등학교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몸살이 다 난 예린이를 보면서 아빠도 힘을 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단다.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태어날 때도 겨우 하루 가서 보고 1년 중 3~4개월 이상은 출장으로 얼굴도 못 보고 바쁘게 지냈는데도 늘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해주고 가끔은 아빠 보고 싶다고 밤늦게 안자고 기다려줘서 미안하면서도 고맙다. 엄마가 예린이를 위해 아빠가 일하고 있다고 잘 얘기해 주어서인지 늘 늦는 아빠를 이해해주어 고맙단다.

요새 나이 차이 나는 동생이 더 예쁨 받는 것 같아 아기 짓도 하고 투 정도 부리는 예린이를 보면서 아빠가 더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단다. 그럼에도 바빠 여전히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어 미안하구나. 아빠 바쁜 일들 끝나면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그러자.

회사에서 피자와 음료를 보내주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예쁜 카드도 만들어 주어 아빠는 참 기뻤단다. 아빠도 예린이가 만들어준 카드 회사에 자랑할게. 아빠가 하는 일이 예린이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 주지 못할 것은 안단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진심이 예린이의 삶에 힘이 되어주길 바란단다.

이제 학교생활을 시작해서 앞으로 배울 것이 많겠구나.

아빠가 응원해 줄게. 사랑한다 예린아!



NEWS

MONTHLY NEWS

우수인재 양성 위한 새 공간 마련

삼정KPMG, 교육장 및 프로젝트룸 오픈!

지난 5월 2일, 삼정KPMG는 강남파이낸스센터(GFC) 9층에서 교육장 및 프로젝트룸의 오픈식을 가졌다.

삼정KPMG는 지난해 12월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으로 Main Office를 이전하여, 새 단장한 데 이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세종(Sejong), 울곡(Yulgok), 다산(Dasan) 3개의 교육장과 임직원들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는 6개의 회의공간 프로젝트룸을 새롭게 오픈했다.

이와 함께 하늘(Sky), 바다(Ocean), 숲(Forest)에 이어 9층에도 임직원들만의 휴게 공간인 호수(Lake) 라운지를 새롭게 마련해, 임직원들이 업무와 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오픈식에는 삼정KPMG 김교태 CEO 및 고문단, 임직원을 비롯해 (주)다원디자인 조규화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순서로 오픈 기념 테이프 컷팅식을 진행해, 삼정KPMG의 교육장과 프로젝트룸의 새 공간이 탄생했음을 알렸다.

김교태 CEO는 “지난 4월,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선포해, 새 도약을 다짐한 것에 이어 5월에는 법인의 교육장 및 프로젝트룸, 휴게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수인재 양성과 임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새 공간을 통해 삼정KPMG가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그리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태 CEO는 삼정KPMG의 Main Office와 교육장 등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해준 조규화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새롭게 Office 및 교육장, 휴게 공간 등을 단장한 삼정KPMG는 임직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은 새 공간에서 고객과 사회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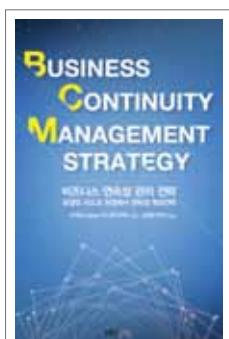
1. 삼정KPMG 교육장 오픈식에 참여한 김교태 CEO와 고문단, 임직원의 모습, 2. 교육장 및 프로젝트룸 오픈 기념 테이프 컷팅식, 3. GFC 9층 교육장, 세종과 울곡룸, 4. 임직원 휴게 공간, GFC 9층 호수 라운지.

‘LP Workshop’으로 고객 성장 위한 결의 다져

삼정KPMG는 4월 7일 본사에서 ‘Lead Partner(LP) Workshop’을 개최했다. 이날 Workshop에서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성장을 위한 Lead Partner의 R&R(Roles and Responsibilities)을 새롭게 정립했다. 특히 Lead Partner에게 임명패를 수여하며,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현재 경제 상황의 이슈에 따른 고객 니즈를 분석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Business Development 역량 강화를 모색했다. 앞으로도 삼정KPMG는 고객의 성장을 위해 Lead Partner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삼정KPMG 리스크 컨설팅 본부,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전략』출간



삼정KPMG 리스크 컨설팅 본부는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연속성 확보전략』을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KPMG Japan Advisory에서 출간한 내용을 옮겨 번역한 것으로, 리스크 관리의 한 영역인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즉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 등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지진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던 일본 기업의 과거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해답과 극복 사례를 제시해, 국내 기업에서도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레킹 동호회’, 일본으로 트레킹을 나서다!

삼정KPMG 트레킹 동호회가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일본 트레킹을 다녀왔다. 지난해 제주 올레길에 이어, 올해는 일본 규슈지방의 올레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고 돌아왔다. 첫 날 사가현에 위치한 항구도시 가라쓰 코스에 이어 둘째 날은 사가현 우레시노 코스를 계획했지만, 지진의 여파로 후쿠오카 학문의 신사와 해변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마무리 했다. 트레킹 동호회 총무 정희석 이사(PPC)는 “이번 일본 트레킹은 그동안 업무에 지친 마음과 몸을 힐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의 전원 풍경을 감상하고 동호회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트레킹 동호회는 오는 5월 21일 청계산 산행과 6월 25일 공주 마곡사 솔나무 숲길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남녀노소 트레킹,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고 있으니 삼정KPMG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문의: PPC 정희석 이사 heesukjung@kr.kpmg.com



사랑나눔

식목주간 맞아 ‘나무심기 봉사’ 전개

삼정KPMG는 지난 4월 9일, 식목주간을 맞아해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약 6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하여 화살나무, 찔레, 나무수국, 팽나무, 화살나무, 개쉬땅 등 약 400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한편 삼정KPMG는 2010년부터, 매년 4월 생명의 숲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의 일환으로 나무심기를 진행해오고 있다.

NEWS

SPECIAL NEWS

우수한 성과로 법인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 ‘FY2015 삼정KPMG 우수인재 포상 시상식’



삼정KPMG는 지난 4월 25일, Vision 2020을 선포한 ‘FY2016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지난 FY2015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개인과 팀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FY2015 포상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과로 헌신을 다해온 본부와 개인을 선정해 총 8개 부문의 상을 수여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탁월한 역량과 협업으로 수익 측면에서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이뤄 법인의 성장을 위해 기여한 본부에게 주어지는

‘Growth of the Year’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날 직접 시상에 나선, 김교태 CEO는 탁월한 역량과 협업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뤄낸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삼정KPMG는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FY2015 포상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포상금 및 휴가를 지급했다.

미니인터뷰 수상 소감을 묻는다!



Professional of the Year, ‘서대영 S.Manager’

금번 수상의 계기가 된 효성캐피탈 조세불복 업무는 경쟁법인도 실패, 포기했을 정도로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김교태 CEO님의 결정적인 실마리 제공 및 부회장님, 고문님, 부대표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세무본부의 최정우 부대표님, 이관범 본부장님, 인병춘 전무님 그리고 팀의 리더이신 김학주 상무님, 박태영 상무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기에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역량과 위상에 놀라고,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Recruiter of the Year, ‘유승 S.Senior’

큰 영예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정KPMG만의 문화를 일관되게 지원자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누구나 궁금한 점을 스스럼없이 물어보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러한 노력 덕분일 것이며, 삼정KPMG의 젊고 능동적인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든든한 팀이 있었기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을 같이 호흡해 주신 리쿠르팅 TFT 동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더욱 저와 동료, 그리고 회사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FY2015 삼정KPMG 우수인재 포상 수상자

포상명	구분	수상자	수상 선정 이유	포상금/ 휴가
KPMG Story of the Year Purpose Story를 공유하고 Value, Vision, Strategy, Promise를 일상에서 내재화하기 위한 꾸준한 활동 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본부	개인	ICE2 오재영 S.Manager	'즐거운 회계감사'라는 Purpose로,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실함으로 조직 내에서는 존경과 사랑을, 고객으로 부터는 신뢰와 감사를 받고 있음.	100만원/ 3일
	본부	Transfer Pricing본부	'급변하는 국제 경세에 기업이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신뢰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본부의 purpose를 이해하고, 양질의 업무를 위해 힘씀.	200만원
Growth of the Year 탁월한 역량과 협업으로 수익 측면에서 Quantum Jump를 이루어 법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여한 본부	본부	Deal Advisory 1본부	본부원의 협업과 혁신으로, FY2015 삼정KPMG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음.	200만원
Professional of the Year 수행업무의 Quality와 Efficiency 부문 및 Realization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Engagement Team 또는 직원	개인	Domestic Tax2 서대영 S.Manager	경쟁법인에서 실패했던 용역을 성공시킴으로써 KPMG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함.	100만원/ 3일
	팀	대우조선해양 자산부채실사 및 장단기 자금수지 검토 업무팀 (총 35명 : DA2,DA1,DA3,IM1,IM3,IM4,DPP-IRM)	전문가적 시각을 지닌 팀원들이 협업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법인의 전문성에 기여함.	200만원/ 2일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수익 또는 장래성 측면과 법인의 중장기 전략에 기반하여 가장 우수한 신규 Product 또는 고객사를 개발한 Team	팀 (공동 수상)	KT 및 그룹사 재무회계인프라 재구축팀 (총 31명 : ICE2,MCS1)	탁월한 전문성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의 Needs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성장과 법인의 발전에 공헌함.	200만원/ 2일
		한솔섬유 ERP 프로젝트 제안팀 (총 20명 : MCS2,ITC,CM)	다른 경쟁법인과의 차별화를 이루고, 신상품을 발굴하여 Inorganic Growth를 실천함.	200만원/ 2일
Recruiter of the Year(신입) 법인의 우수 신입회계사 유치에 공헌도가 높은 직원	개인	IGH 유승 S.Senior	법인의 Reputation 향상 및 로열티 높은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함.	100만원/ 3일
Probono of the Year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법인의 위상을 높이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개인	Actuaries 신동훈 Manager	간 이식으로 어머니에게 사랑을 보답하고, 효를 실천해 임직원에게 좋은 귀감이 됨.	100만원/ 3일
GKP of the Year 각 나라에 파견된 Korea Desk 파견자 중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삼정KPMG의 위상과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뛰어난 공헌을 한 직원	개인	해외파견(KPMG Mexico) 김태우 S.Manager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사업기회 개발에 기여했으며, 멕시코 및 남미 시장에서 법인과 Korea Desk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100만원/ 3일
Innovator of the Year 업무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선 직원	팀	Central Services GA 내 관제팀 (총 4명)	법인 Office의 인테리어 공사 및 이전 작업을 수행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	200만원/ 2일



각 팀 수상자 명단 (직급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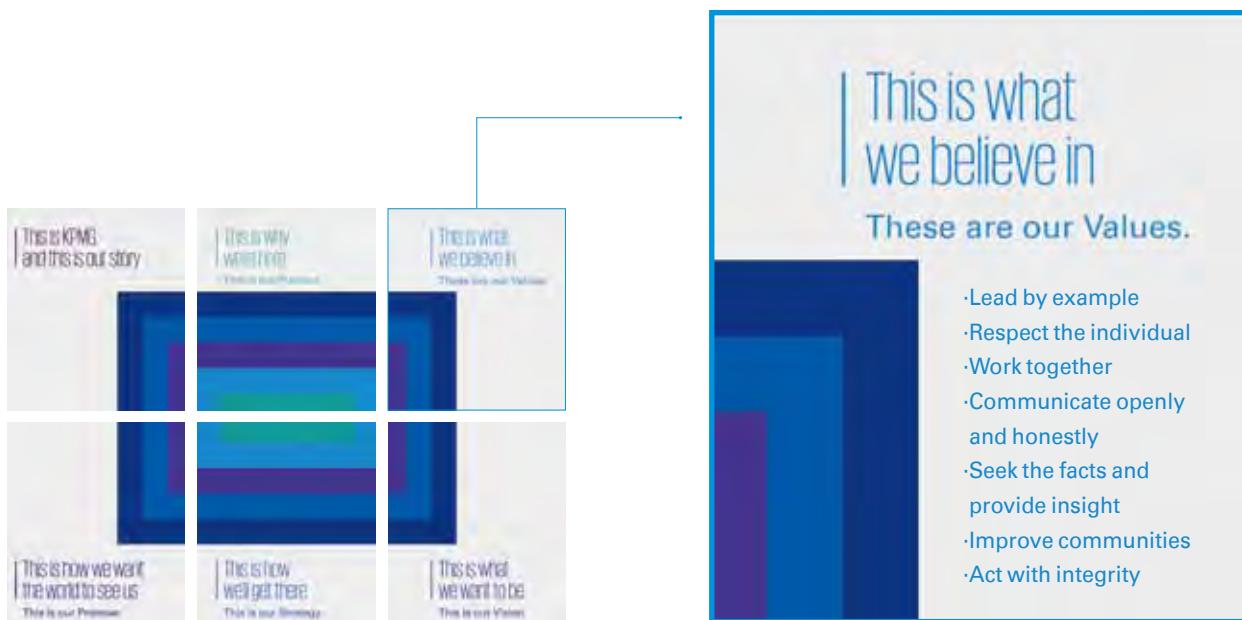
- Professional of the Year, 대우조선해양 자산부채실사 및 장단기 자금수지 검토 업무팀: 나재광, 이병호, 주광돈, 이영민, 송현태, 박재훈, 유정하, 남정기, 김보성, 하정호, 허권, 권혁준, 심준보, 김목, 이종성, 김민규, 염정훈, 최정진, 이성경, 노준호, 문동현, 김경환, 권일호, 이상민, 차정우, 이찬희, 김기학, 김철영, 백명종, 김도현, 심의철, 서무성, 서민호, 김유미, 염정복
-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KT 및 그룹사 재무회계인프라 재구축팀: 안정범, 최이현, 강상현, 박형만, 홍석동, 남주훈, 고경석, 유계현, 김지환, 송현선, 김동욱, 강진명, 김은희, 설유진, 황만순, 손영진, 이슬기, 이재석, 이상현, 이은별, 이우현, 황인복, 김석진, 김의진, 김세모, 정룡희, 노진환, 김현우, 송동인, 남상현, 김한솔
-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한솔섬유 ERP 프로젝트 제안팀: 최노영, 김시우, 신해성, 김종영, 이상열, 안준식, 고중육, 한승현, 김정원, 윤영란, 최성규, 한경화, 김필문, 고명성, 이해원, 백승경, 김목, 김수림, 조한마루, 공승현
- Innovator of the Year, Central Services GA 내 관제팀: 한준길, 백호열, 경남선, 성경훈

This is what we believe in

These are our Values.

솔선수범, 존중, 협업, 소통, 통찰력, 공헌, 정직성실. 이는 KPMG의 7가지 Value입니다. KPMG의 Value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우리의 Value는 전 세계 155개국에 걸쳐 16만2천 명의 KPMG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동양식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업무와 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KPMG가 전 세계에 일관된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